

# 가야문권 공동발전 중심지로

###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 임실 가야 고분군 방문... 공동발전 방안 모색

임실군이 가야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영·호남 화합의 장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25일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가야사 바로알기 투어'의 일환으로 임실군 금성리 가야고분군을 방문해 가야문화권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라도와 경상도 2개 시군 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실군은 지난 2017년 12월 협의회에 가입했다.

협의회는 가야문화권을 통한 영·호남간 지역감정 해소와 공존, 그리고 상생의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고 동반자적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 조직됐다.

이번 방문은 지자체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가야사 바로알기 투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가야문화사 바로알기 투어는 임실과

남원, 장수, 구례, 곡성, 광양, 여수, 순천 등 전라도 일원의 가야유적지 발굴 현장을 탐방하고 시군 상호간의 관심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임실군에는 임실 금성리 고분군, 청운 석두리 유적 등지에서 가야계 유물이 출토됐다.

특히 임실 금성리 고분군은 1974년 발견된 유적으로 삼진강을 따라 내륙 깊숙한 곳에서 가야계 장경호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학계에서 일찍부터 주목해왔던 곳이다.

이번 협의회 관계자들이 찾은 임실을 금성리 일대는 임실치즈마을과 임실치즈테마파크 사이에 있는 산176-1번지로 2017년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을 통해서 발굴한 곳이다.

발굴조사를 통해서 가야고분군 3기가 확인됐고, 무덤의 양식은 약 80cm 성토한 후에 분구 중앙에 매장시설을 안치한 분구묘 형태로 원형의 주구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분구 규모가 직경 16.2m, 잔존높이 1.1m, 주구규모는 너비 310cm, 최대깊이 180cm에 이르는 대형주구가 발견된 곳이다.

2017년 '임실 금성리 가야고분군 긴급발굴조사'의 책임을 맡았던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박영민선생은 "현재 금성리 가야고분군의 남쪽 부분에 대한 추가발굴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성격 규정이 필요하며, 향후 복원공정을 통해서 임실지역 가야문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협의회 관계자들을 맞이한 박진두 부군수는 "임실은 가야문화권과 백제문화권의 경계에 있는 곳"이라며 "이번 방문이 임실지역 가야문화를 널리 알리고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문화관광처과(063-640-2315)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자원봉사대학수료생 '사랑나무봉사단' 창단

남다른 자원봉사와 이웃사랑 사랑감으로 뭉친 남원시민들이 사랑나무봉사단을 창단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배종철)가 진행한 2018년 자원봉사대학을 수료한 25명이다.

2018년 자원봉사대학은 지난 2월27일 개강식을 갖고 인문학으로 성찰하는 자원봉사단 주제로 매주 화요일 밤 2시간씩 9회 차례 강의를 통하여 자원봉사의 소양과 참여의식을 갖추게 되었다.

사랑나무봉사단은 자원봉사대학 수료식과 함께 창단식을 갖고 남원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했다.

사랑나무봉사단원들은 "꽃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향기는 만리를 간다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의 향기는 끝이 없다."는 자원봉사의 진리를 실천하기로 했다.

사랑나무봉사단은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에 신규등록 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매아리

### 순창군, LED조명 교체 추진

순창군이 사회복지시설 11개소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6월까지 522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어린이집 10개소와 장애인시설 1개소의 노후된 백열등과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군은 지난 3월에 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지사장 남상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LED조명 교체 사업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군이 사업비를 남원순창지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급하고 교체공사는 남원순창지사에서 5월초부터 실시한다.

1차 사업비는 어린이집 7개소에 2천607만원이고 2차 사업은 도 산업진흥과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와 협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시정현장 공감특목 교육

남원시는 25일 하위직 공무원(7급이하)들을 대상으로 시정현장 공감특목 교육을 시행했다.

시정현장 공감특목 교육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교육으로 지난 3월말에 첫 시행 후 1회 실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자 본인의 업무에 매진하다보니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현안 사업이나 타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무관심을 해소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관심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김병중 미술관 등 주요현안 사업장을 방문한 40여명의 남원시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관심이 많지 않았던 시 주요 현안사업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남원의 미래 청사진이 되어줄 주요현장을 가까이서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경찰서, 여직원 간담회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가 최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여직원과 간담회를 개최,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남성 위주의 특수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직원들을 격려하고 근무 중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 아름다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직원들은 "서장님의 진지한 경청과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 더욱 열심히 근무해야겠다."는 일성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숲가꾸기 착수... 18억 9천만원 투입

임실군이 청정지역 이미지와 푸른 임실을 만들고, 경제적·생태적 환경이 갖는 건강한 숲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올해 18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8년도 숲가꾸기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숲가꾸기 사업은 1,310ha의 임야에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특히, 산림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임실군은 해마다 지속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 불필요한 잡목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량목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녹색일자리 창출효과까지 더해져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 소유자가 신청한 산림에 대하여 현장에 적합한 공정을 적용한다.

조림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사후관리를 위한 조림지가꾸기사업(1,100ha)을 실시하고, 조림 후 5년~10년 이내의 임지에서 어린나무 주변의 경쟁목·고사목 등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생장에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어린나무 가꾸기사업(116ha)을 실시하고 있다.

대경목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공림, 혹은 형질 개량이 필요한 천연림지역에서 보육 대상목에 방해가 되는 고사목 및 경쟁목의 솎아베기를 실시하는 큰나무 가꾸기사업(94ha)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군은 임실을 정촌마을에 썬지숲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느티나무와 청단풍, 왕벚나무 등과 함께 들나무 등 시설물들도 설치하고 있다.

군은 산림을 대기정화, 수원함양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추구에 그치지 않고, 산림의 경영으로 산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숲가꾸기 사업은 청정임실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고, 초록이 푸르고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 꾸준히 전개하는 사업"이라며 "산림자원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만큼 숲가꾸기 사업을 철저히 진행해 소나무 병해충을 예방함은 물론 우량목을 생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마을택시 1000원 시대 열다

### 기본요금 인하

순창군 마을택시가 1,000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마을택시 승차요금을 1,000원으로 인하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에서 시행하는 '마을택시사업'은 군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중 승강장이 마을회관에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를 대신해 택시를 이용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4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최근 버스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순창군 관내 지역 어디에서나 1,0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을택시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

농어촌버스 승차요금과 마을택시 승차요금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군은 지난 17일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조치도 완료한 상황이다.

순창군은 버스단일요금제와 이번 마을택시제도 운영으로 1000원으로



순창군 마을택시가 1000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

순창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완성했다.

즉 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은 1000원의 요금을 내고 버스로 이동하고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은 1000원으로 마을택시를 이용해 주민들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된 것.

이처럼 값싼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면서

주민들도 크게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2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성인은 950원 학생은 45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